



대한민국 스포츠의 근본적 변화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체육시민연대와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2022년 4월, 하늘에 별이 된 김포FC 유소년
축구 U-18팀 정우림 선수의 명복을 빕니다.
우리는 잊지 않겠습니다.

체육시민연대 뉴스레터

2024년도 제14호

2023~2024 V리그 시상식

김연경, 한 번 더 빛나는 도전

김하진 경향신문 기자

[김세훈의 스포츠N]

국가교육위원회, 체육 단독교과 편성을 허(許)하라

김세훈 스포츠경향 기자

팬들 조직 감시 시민운동 역량 갖춰...국민 의견 귀 기울여야 할 당위성도

대한축구협회 조직변화 이끌도록 성장하는 팬의 열정

이현서 아주대학교 스포츠레저학과 교수

대법원, 원고 패소 판결 뒤집고 파기환송

대법 "공사 산하 스포츠센터 직원도 최소 성과금은 받아야"

이근아 한국일보 기자

파크골프 동호회 가입 시 장애인 참여를 제한한 규정을 개정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장애인 참여 40% 이하로? 제주파크골프협회, 인권위 권고에 규정 삭제

고경태 한겨레 기자

당일치기 선수단 100명 이하 등 실속 없는 대회 지적

스포츠재단 갈등 태백시, 2024년 질보다 양 위주 체육대회 논란

홍춘봉 프레시안 기자

기사 모아보기

주간 스포츠 소식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효령로 230. 승정빌딩 407. TEL 02-2279-8999

<https://www.sportscm.org/>

신일본스포츠연맹 국제교류세미나 안내

일시 : 2024.04.09(화) 오후 6시 30분 ~

장소 : ZOOM

링크 : <https://us02web.zoom.us/j/81846777735?pwd=UU0ZHB6aEpoZW1UeFY5Mmk3UkZz09>

ID : 818 4677 7735

PW : 933895

체육시민연대 측 발표

스포츠를 통한 시민운동의 실험: 호호체육관

발제자 : 정용철 서강대학교 교수, 체육시민연대 공동대표

김연경, 한 번 더 빛나는 도전

‘배구 황제’ 김연경(36·흥국생명)이 또 가장 빛나는 별이 됐다.

김연경은 8일 더케이호텔 서울에서 열린 도드람 2023~2024시즌 V리그 시상식에서 여자부 최우수선수(MVP)를 차지했다. 기자단 투표 31표 중 20표를 얻어 현대건설 양효진(5표)을 제치고 MVP를 수상했다. 개인 6번째 MVP 수상으로 최다 수상 기록을 또 갈아치웠다. 흥국생명은 챔피언결정전 준우승에 그쳤지만 비우승팀 MVP 배출에 성공했다.

기록에서도 김연경은 팀 내 최고 선수를 넘어 리그 최고의 활약을 했다. 그는 공격성공률 2위(44.98%), 리시브 5위(효율 42.46%), 정규리그 득점 6위(775점), 수비 8위(세트당 5.557개)로 각종 부문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김연경은 2023년 2월 은퇴 의사를 밝혔다가 챔피언결정전 준우승의 아쉬움으로 현역 생활을 연장하기로 했다. 자유계약선수(FA)로 총 보수액 7억7500만원에 1년 계약하며 흥국생명에 잔류했다.

김연경은 이번 시즌 우승의 한을 풀기 위해 심없이 달렸지만 정규시즌 막판까지 현대건설과 1위를 다투다 결국 2위로 시즌을 마감했다. 챔피언결정전에서는 1승도 올리지 못하고 물러났다. 김연경은 웃음 한 점 없는 표정으로 챔피언결정전 준우승 트로피를 받아들었다.

챔피언결정전을 마친 뒤 “휴식을 가지면서 생각해보겠다”던 김연경은 이날 시상식에서 내년 시즌에도 선수로 뛰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연경은 “고민을 좀 많이 했다. 구단 흥국생명과도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내년 시즌 많은 팬분들을 위해 한번 더 도전하기로 결심했다”고 말해 박수 갈채를 받았다. 배구계 전체를 향한 메시지도 보냈다. 김연경은 “올해 아시아쿼터가 도입됐고 외국인 선수들도 활약하고 수준 있는 리그를 선보였지만 한국 배구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지 여기 계신 분들과 우리 모든 배구인들이 하나가 되어서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V리그를 대표하는 선수다운 소감을 밝혔다.

남자부에서는 OK금융그룹 레오가 MVP를 차지했다. 여자부와 남자부 모두 준우승팀에서 MVP를 배출했다. 레오는 15표로 대한항공 임동혁(12표)에 근소한 차이로 앞서 MVP에 올랐다.

국가교육위원회, 체육 단독교과 편성을 허(許)하라

알리바바 그룹 창립자 마윈은 2017년 과학 기술이 지배할 미래에 살아가기 위해 자녀들에게 지금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지 역설했다.

“교육은 큰 도전을 받고 있다. 교육이 달라지지 않으면 30년 후 우리는 어려움을 겪게 된다. 현재 교육은 200년 전 지식을 가르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지금 그렇게 가르쳐서는 우리 아이들이 더 똑똑해지는 기계와 경쟁할 수 없다. 기계가 배울 수 없는 것들을 가르쳐야 한다. 믿음, 독립적 사고, 팀워크, 타인에 대한 배려 등 소프트한 가치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가르쳐야 하는 것은 스포츠, 음악, 미술이다.”

과거 책이 없을 때, 미디어가 부족할 때, 배울 곳도, 지도할 사람도 없을 때 우리는 학교에서 교과서로 거의 모든 지식을 배웠다. 그게 국어, 수학, 과학, 역사, 언어 등으로 명명된 교과들이다. 당시 학교는 지식을 가르치는 것만으로 역할이 충분했다. 그런데 지금은 정보가 넘치고 넘친다. 오프라인 교육 콘텐츠가 과할 정도로 풍부하다. 인터넷 사이트, 유튜브, 챗GPT 등을 이용하면 원하는 지식, 정보, 식견 등을 대부분 찾을 수 있다. 머신러닝 기반 인공지능(AI)까지 급속도로 발달하고 있다. 인공지능은 인간이 수집할 수 있는 모든 지식을 저장하고 분석하고 암기하며 답도 내놓는다. 기성세대 경쟁 상대는 사람이었지만, 우리 자녀 경쟁 상대는 과학 기술임은 부정할 수 없다. 우리 자녀에게 영어 단어, 수학 공식, 연도를 외우게 하는 게 과거만큼 엄청난 의미와 무게감을 지니지 않는다. 지금은 다양한 관점에서 얻는 수많은 지식과 해석을 어떻게 융복합적으로 이해할지, 고도로 발달한 과학 기술 시대에서 인간이 어떤 가치와 존엄성을 갖고 살아갈지를 고민해야 하는 때다.

스포츠, 음악, 미술도 과학이 영역을 침범하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인간이 어느 정도는 창조할 수 있는 영역으로 간주된다. 그래서 다수 선진국들과 유명한 학교들은 스포츠, 음악, 미술 교육에 정성을 쏟고 있다. 그런데 유독 우리나라 공교육만 뒤편이다. 어린이집, 유치원에서는 신체활동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론상’ 명기됐지만 실제로는 뒷전으로 밀렸다. 초등학교 1,2학년에는 체육을 아예 가르치지 않는다. 음악, 미술, 체육을 한데 묶어 즐거운 생활로 편성돼 있지만 실제로 하는 신체활동은 소꿉장난, 꽃구경 등 소근육을 꼼지락거리는 게 전부다.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 1-2학년 교실에서 노래 소리가 끊긴 곳도 많다. 그나마 미술은 형편이 조금 낫다.

정부는 초등 1,2학년 교육과정에 체육을 단독교과로 편성하는 걸 추진하고 있다. 교육과정을 바꾸려면 국가교육위원회 결정이 필요하다. 그런데 국가교육위원회는 “통합 교육을 깨서는 안 된다”며 체육 단독 교과 편성을 반대하고 있다.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일본, 캐나다, 호주 등은 유치원부터 연령대별로 대근육 중심 신체활동을 체계적으로 지도하고 있다. 이들이 융복합 교육을 몰라서 체육을 단독 교과로 가르치는 것일까. 아니면 신체활동이 신체적, 정서적, 심리적, 교육적으로 자녀들이 원만하게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일까.

노래도 못 부르고, 몸도 못 가누는데 무슨 통합 교육이 이뤄질 수 있을까. 개별적인 것에 익숙해진 뒤에야 진정한 통합이 가능하다는 걸 국가교육위원회만 모르는 것일까. 아이들의 움직임은 본능이며 권리다.

[수요광장] 대한축구협회 조직변화 이끌도록 성장하는 팬의 열정

2024.04.02



이현서

아주대학교 스포츠레저학과 교수

우리는 일하거나 공부할 때 감정보다 이성을 앞세워 판단하고 행동한다. 그러나 여가 시간에는 긴장한 이성의 끈을 풀어 감정을 분출하고 쏟아낸다. 쏟아내는 감정 에너지 덕분에 문화산업이 성장하고 스타가 만들어진다.

우리는 자기가 좋아하는 대상을 열성적으로 지지하는 사람을 팬(fan)이라고 부른다. 팬의 감정 에너지는 문화산업 매출 규모를 올리는 핵심 동력이고 앞으로 문화산업 조직 체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중요한 자원이 될 것이다.

지난 2월7일에 남자축구 국가대표팀이 아시안컵 4강전에서 졸전으로 패배한 책임을 묻는 팬 움직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당시 팬들은 클린스만 감독 경질과 감독 선임과 관리에 무능했던 대한축구협회(축협) 혁신을 요구하며 분노가 들끓었다. 4강전 후 열혈도 지나지 않아 2월16일에 축협은 클린스만 감독을 경질한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축협이 후임 선발을 서두르면서 팬들 비난이 거세지자, 2월27일에 황선홍씨를 임시 감독으로 선임하였다. 그 와중에 한 영국 신문사가 손흥민 선수와 이강인 선수 간의 다툼을 보도하면서, 축협 회장 퇴진이나 조직 혁신에 대한 팬의 요구는 약해지고 이강인을 비난하는 것으로 치달았다.

이강인이 4강 졸전을 낳은 원흉으로 취급받으며 욕받이가 되어 팬들로부터 공격받았다. 그 결과 축협은 2026 북중미 월드컵의 아시아 예선전으로 3월21일에 개최된 태국전 경기의 홍보 포스터에 이강인을 제외하였다. 당시 축협은 팬들로부터 못매를 맞던 이강인을 태국전에 선발하는 게 부담스러웠을 것이다. 이강인에 대한 맹비난은 이강인이 영국에 있는 손흥민에게 직접 가서 사과하고, 서로 화해하여 다정한 모습을 매체에 보여주고 3월26일 2차 태국전에서 승리하면서 사라지고 있다. 다행히 팬의 열정이 잘못된 방향으로 치달아 선수 생명이 위태로워지는 지경까지 가지는 않았다.

그런데 1차 태국전을 앞두고 응원단 '붉은 악마'는 정몽규 회장 퇴진을 요구하며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관중석의 '자리를 비워주세요'라는 문구로 보이콧 운동을 벌였다. 보이콧 운동이 무색하게 상암경기장의 6만5천석은 매진되었는데, 일부 팬들이 '정몽규 퇴진' 문구를 쓴 팻말과 깃발을 들고 경기장에 들어갔다. 축협이 고용한 경호원이 깃발을 빼앗으며 실랑이가 벌어진 순간을 팬들이 영상으로 찍어 퍼뜨리면서 이 사건이 기사화되고 알려졌다. 이제 축협은 황선홍 임시 감독과 계약을 종료하고 다시 감독을 선임하는 과제에 당면하였다. 무엇보다 이 선임 과정의 합리성과 투명성까지 확보해야 하는 과제를 가지고 있다.

지난 아시안컵 후에 벌어진 사태를 통해서 우리는 축협이 폐쇄적인 조직 운영으로는 더 이상 지속하기가 어렵다는 현실을 알게 되었다. 팬들은 단순히 축협 수익을 올려주는 대상에 그치지 않고, 축협 조직 운영에 영향을 행사하는 주체로 성장하고 있다. 축협이 조직을 운영할 때 팬을 합리적으로 설득하여 이들을 자기편으로 만들지 않는다면, 조직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는 것이다.

일부 스포츠 전문가, 일부 재벌기업, 일부 언론사 간의 협업으로 스포츠조직 운영을 폐쇄적으로 좌지우지하는 시대는 저물고 있다. 정보통신기술 발전으로 팬은 스포츠조직을 감시할 수 있고 시민 운동까지 조직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되었다. 또한 축협은 민간기관이지만 올해 예산 1천876억원의 약 18%에 해당하는 333억원이 공적 자금(스포츠토토지원금 225억원, 국민체육진흥기금 108억원)이라서 국민 의견에 귀 기울여야 할 당위성을 갖고 있다. 이제 축협도 ESG경영(친환경 경영, 사회적 책임과 투명한 지배구조를 발전시켜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히려는 경영 전략)으로 조직을 더 혁신할 필요가 있다. 현재 이 변화를 추동하는 힘이 바로 팬의 열정이다.

/이현서 아주대학교 스포츠레저학과 교수

대법 "공사 산하 스포츠센터 직원도 최소 성과급은 받아야"

지방공기업이 성과평가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산하 센터 직원에게 성과급을 한 푼도 주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공기업 직원이 최하 평가를 받아도 성과급을 수령하는 것과 비교하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취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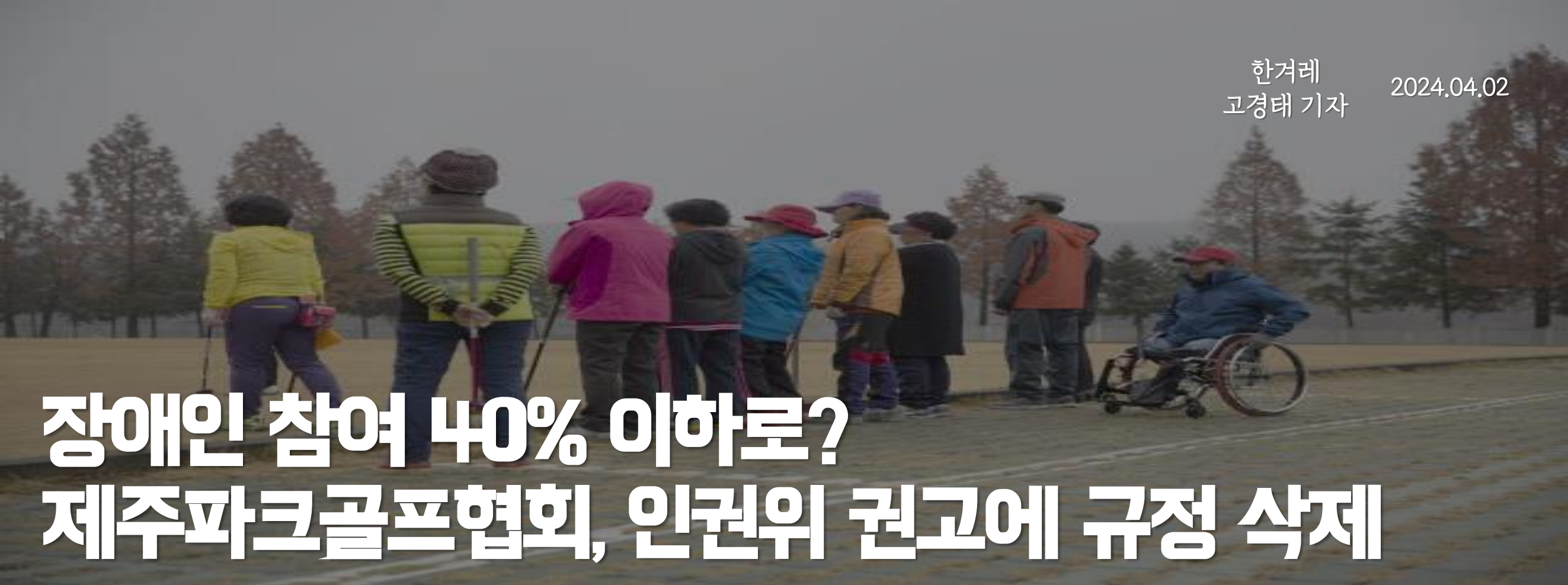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대구도시개발공사 산하 레포츠센터 직원들이 공사를 상대로 낸 성과급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뒤집고 지난달 12일 대구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A씨 등은 2020년 "2016~2018년 성과급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공사는 2007년 4월 성과평가에 근거해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는 규정을 도입했는데, 산하 센터 직원에게는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센터 직원들은 공사 산하 별개 사업체인 센터 측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므로, 공사의 지급 의무가 없다는 이유였다.

1심은 공사 손을 들어줬다. 센터장이 자체 예규로 직원들을 채용했기 때문에 공사 규정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이었다. 2심 재판부는 센터 직원들이 성과급 지급대상이 된다고 판단하면서도, 지급의 의무는 없다고 봤다. 직원들은 '최소한의 성과급' 지급 의무가 있단 전제로 소송을 냈는데 공사가 원고들에 대해 성과평가를 하지 않아 액수 특정이 어렵다는 이유였다. 행정안전부가 실시하는 영영실적 평가에서 공사가 최하 등급을 받을 경우, 성과급이 0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주장하는 최소한의 지급률이 정해져 있지 않단 것도 근거가 됐다.

상고심에서는 일부 성과급이라도 공사에 지급 의무가 인정되는지가 쟁점이 됐다. 대법원은 "성과평가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해도 개인별 최하등급자에게 부여된 지급률만큼은 원고들에게 보장된 것"이라면서 "공사는 그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개인별 근무성적 최하 등급을 받은 공사 근로자에게도 성과급이 지급된 점을 근거로 들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는 성과급 지급의무의 발생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결론냈다.



장애인 참여 40% 이하로? 제주파크골프협회, 인권위 권고에 규정 삭제

파크골프 동호회 가입 시 장애인 참여를 제한한 규정을 개정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권고를 해당 골프협회가 수용했다.

인권위는 2일 “제주시 파크골프협회장이 동호회 등록 시 회원 구성은 비장애인 60% 이상, 장애인(지체장애인) 40% 이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삭제하고 장애인식 개선 내용을 포함한 인권교육을 수강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6월30일 제주시파크골프협회장에게 이런 내용의 장애인 참여 제한 규정 개정을, 제주시장과 제주시 체육회장에게는 생활체육 분야에서 장애인 차별행위가 있는지 점검 및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인권위는 “제주시 역시 체육회 회원 종목단체의 장애인 차별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제주시체육회와 주기적으로 합동 점검을 추진하겠다고 회신했다”고 밝혔다.

파크골프는 도심의 공원 또는 유희부지에서 18홀까지 소요된 타수로 승부를 겨루는 스포츠로, 경기 방식은 일반 골프와 비슷하다. 진정인은 2022년 3월경 신규 동호회를 결성하여 피진정협회에 가입신청을 문의한 결과, 동호회 회원 구성 비율이 적정치 않다는 이유 등으로 거절당하였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낸 바 있다. 이에 대해 제주시 파크골프협회는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선수가 상대적 장점을 가진 스포츠라 장애인 차별이 아닌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소위원장 남규선 상임위원)는 “약 90분인 파크골프의 경기 시간을 볼 때, 전동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공정하지 않은 경기 결과를 얻을 만큼 우월한 경기력 및 체력을 갖고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대한파크골프협회 및 6개 시·도 파크골프협회 중 회원가입 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비율을 설정하여 가입 여부를 정하는 곳은 없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이번 권고수용을 통해 향후 생활체육 분야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가 재발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스포츠재단 갈등 태백시, 2024년 질보다 양 위주 체육대회 논란

스포츠재단 설립 문제로 체육계와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태백지역에 올해 56개 대회를 유치했다고 밝혔지만 질보다 양에 치우치고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8일 태백시에 따르면 스포츠 메카 태백시는 이달 '2024 태권도 전국 종별선수권대회'를 비롯해 올해 전국 및 도 단위 56개 체육대회를 유치한 가운데 이달에만 7개 대회가 태백에서 개최된다고 보도자료에서 밝혔다.

지난 2일부터 오는 10일까지 고원체육관에서 열리는 이번 태권도대회는 선수 2800여 명과 지도자, 학부모 등 700여 명이 참가하고 있으며 12일 개막하는 '전국 대학 핸드볼 통합리그 대회'는 13팀 30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한다.

또한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되는 제19회 1,2학년 전국 대학축구연맹전(7월), 제60회 전국 추계대학축구연맹전(8월)이 개최되는 등 올해 56개 각종 체육대회가 11월까지 예정되어 있다. 그러나 체육계에서는 단 하루나 이틀만 개최되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크지 않은 대회가 14개에 달하고 선수단이 100명 이하이거나 200명 이하의 소규모 대회도 10여개 달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체육인들은 스포츠재단 설립 갈등으로 도내 18개 시군 선수단이 참가하지 않는 대회도 최소 태백산배전국동호인클럽 축구대회 등 7, 8개 대회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아울러 14년간 태백에서 개최해온 태백산배전국 중고배구대회와 10년간 연속 개최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 중고태권도대회는 체육계 갈등으로 인제와 철원으로 개최장소가 변경되었다. 또 대한체육회장기 생활체육전국탁구대회 등 지난해까지 태백에서 개최되었던 탁구대회도 최소 3개 대회가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추가로 다른 종목의 전국대회도 취소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한 체육가맹단체 회장은 "스포츠재단 설립갈등으로 각종 체육대회 유치에 차질이 속속 생기고 있어 체육인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며 "체육대회 유치로 먹고사는 태백시가 스포츠갈등이 해소되지 못하면 체육도시의 가치는 더욱 추락할 것"이라고 토로했다. 또 다른 체육계 인사는 "참가 선수가 얼마 되지 않고 하루 이틀에 경기를 치르는 대회는 지역경제에 별 도움이 되지 못하는 대회"라며 "양보다 질이 중요한데 숫자만 많이 만드는 체육대회 유치는 누구를 위한 체육행정인지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이에 태백시 관계자는 "지난해보다 많은 체육대회 유치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며 "하루나 이틀 실시하는 체육대회는 판단하기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지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체육대회 유치에 최선을 다하는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태백시는 올해 제1회 태백시장배 전국청소년골프대회와 제1회 태백시장배 전국 파크골프대회 등 2개 대회를 처음 신설했으며 태백오투리조트 스키장에서 열린 전국종별선수권대회 스노보드 대회, 2024 태백산타~런 스노우 트레일대회 등은 처음 유치했다.

특히 지난 2월 고원체육관에서 처음 개최된 프로복싱 WBF 아시아퍼시픽 타이틀매치 및 국가대항전은 단 하루 시합에 선수단도 100명에도 미치지 못했으나 대회유치에 9000만 원 가까운 혈세를 지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간 스포츠 소식

[공식] '야구없는 월요일' 1군 엔트리서 12명 무더기 말소... 부상자까지 발생

<https://sports.news.naver.com/news?oid=108&aid=0003226974>

KBSN 스포츠 "한화·KIA, 프로야구 시청률 쌍끌이"

<https://www.yna.co.kr/view/AKR20240408059400007?input=1195m>

부산 한마음스포츠센터, 'KCIA 소비자평가' 우수시설 선정

<https://www.fnnews.com/news/202404080913494569>

KBO, 프로스포츠협회 발간 '야구장 규모·용도별 건립 가이드북' KBO 홈페이지 수록

<https://isplus.com/article/view/isp202404080101>

여자프로테니스 시즌 최종전, 3년간 사우디아라비아서 개최

<https://www.yna.co.kr/view/AKR20240405017900007?input=1195m>

경남교육청 학교 운동부 지도자 '인권·청렴' 맞춤형 연수

<http://www.gn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388500#0BNb>

사우디에 프로야구 생긴다... 세계 스포츠 '큰손'

http://www.yonhapmidas.com/article/240331214744_804181

즐기는 스포츠 백호기, 그리고 멋진 볼거리 속에 학생들

<https://www.jejusori.net/news/articleView.html?idxno=425417>

대전교육청, 학교체육 활성화 추진

<https://www.ccdn.co.kr/news/articleView.html?idxno=969694>

체육시민연대 온라인 정기 후원 안내

‘귀하를 체육시민연대 회원으로 모십니다’

체육시민연대는 우리사회 변화를 위해 실천합니다.

스포츠 인권과 평화,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문화를 함께 만들어 갑니다.

***후원:국민은행 086601-04-095940, 체육시민연대**

체육시민연대는 기부금대상 비영리민간단체로

시민들의 후원에 의해 운영됩니다.

(연말 기부금영수증발급)

온라인 정기 후원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